

2021년 2월 24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나스닥, 파월과 애플의 힘으로 급락을 되돌림

파월 연준 의장, “물가는 장기적이고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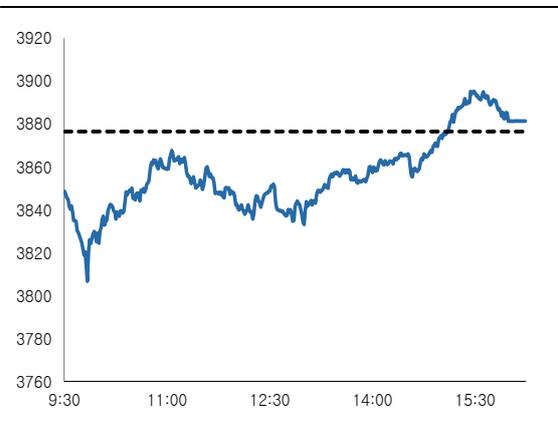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비트코인 급락, 파월 의장 발언, 애플의 힘

미 증시는 비트코인이 16% 넘게 급락하자 테슬라(-2.19%)가 한 때 13.4% 급락하는 등 밸류 부담이 큰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특히 나스닥은 3.9%나 급락. 이런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이 인플레이 압력에 대한 우려를 완화 시키는 발언으로 금리가 안정을 찾자 낙폭이 축소. 더불어 6% 급락했던 애플(-0.11%)이 주총에서 배당 확대 언급 후 장중 상승 전환한 점도 영향(다우 +0.04%, 나스닥 -0.50%, S&P500 +0.13%, 러셀 2000 -0.88%)

전일 5 만 8 천달러를 상회했던 비트코인이 일론 머스크가 가격이 비싸다는 발언과 옐런 재무장관의 규제 언급으로 급락한 데 이어 오늘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며 한 때 16% 넘게 하락한 4 만 5 천달러를 기록. 이러한 극단적인 비트코인의 등락은 투기적인 거래에 대한 우려를 높였으며 결국 밸류 부담이 높은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 출회 요인. 특히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테슬라(-2.19%)가 장중 13.4%나 급락하는 등 관련주에 대한 매물이 집중.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0.58%)도 장중 4.6%나 하락하고 전기차, 태양광, 대마초 관련주 등 테마로 상승했던 대부분의 종목이 급락 했는데 이는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가 밸류에이션 부담 이슈를 자극 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이 여파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한 때 3.9% 급락

그러나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통화정책은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움직일 것” 이라고 주장하자 낙폭이 축소. 특히 “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것” 이라며 인플레이 우려를 완화 시키자 지표 호전 등으로 상승하던 미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은 점도 영향. 더불어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에서 거품을 찾기는 어렵다” 라고 주장하며 버블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점도 영향. 여기에 6% 넘게 급락했던 애플(-0.11%)이 주주총회에서 향후 배당을 늘릴 것이라는 발표하자 한 때 상승 전환에 성공. 이에 힘입어 장 마감 앞두고 4% 급락했던 나스닥이 낙폭을 대부분 해소하고 다우와 S&P500 은 강세로 전환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070.09	-0.31	홍콩항셱	30,632.64	+1.03
KOSDAQ	936.60	-1.85	영국	6,625.94	+0.21
DOW	31,537.35	+0.05	독일	13,864.81	-0.61
NASDAQ	13,465.20	-0.50	프랑스	5,779.84	+0.22
S&P 500	3,881.37	+0.13	스페인	8,252.10	+1.72
상하이종합	3,636.36	-0.17	그리스	773.52	-1.08
일본	30,156.03	+0.46	이탈리아	22,939.38	-0.3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테슬라(-2.19%)는 비트코인 급락 여파로 한 때 13% 급락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이 대부분 축소되며 마감 했다. 테슬라에 이어 전환 사채 발행해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던 마이크로스트레티지(-21.09%)는 급락했다. 페이팔(-3.23%)과 Nvidia(-1.49%), AMD(-0.74%)는 물론 채굴업체인 올트 글로벌(-16.45%), 라이엇 블록체인(-24.64%) 등도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비트코인 급락은 밸류 부담을 자극해 니오(-3.10%)등 전기차 테마는 물론 에메티스(-2.49%), 게보(-4.80%)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들, 킬리오(-5.71%), 아프리카(-6.67%) 등 대마초 관련주 등 테마주들의 하락을 부추겼다. 다만 대형주는 낙폭이 축소된 반면 중소형주는 매물이 지속된 모습이다.

애플(-0.11%)은 장중 6% 넘게 급락하기도 했으나 주춤에서 배당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자 한 때 상승 전환하는 힘을 보였다. 영화관 체인점인 AMC엔터(+17.56%)는 뉴욕주가 영화관 재개 허가를 발표하자 급등했다. JP모건(+0.80%), BOA(+1.05%) 등 금융주는 인플레이 압력 지속 기대로 상승했으며, 카니발(+1.89%) 등 크루즈 업종, 델타항공(+1.26%)과 디즈니(+2.78%) 등 항공, 레저 업종은 경제 봉쇄 완화 기대 속 강세를 이어갔다. 홈디포(-3.12%)는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 제시를 하지 않자 하락했다. 로이어스(-2.22%)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2.15%	대형 가치주 ETF(IVE)	+0.38%
에너지섹터 ETF(OIH)	-0.47%	중형 가치주 ETF(IWS)	+0.38%
소매업체 ETF(XRT)	-1.54%	소형 가치주 ETF(IWN)	-0.32%
금융섹터 ETF(XLF)	+0.61%	대형 성장주 ETF(VUG)	-0.16%
기술섹터 ETF(XLK)	-0.28%	중형 성장주 ETF(IWP)	-0.85%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93%	소형 성장주 ETF(IWO)	-1.47%
인터넷업체 ETF(FDN)	+0.13%	배당주 ETF(DVY)	+0.52%
리츠업체 ETF(XLRE)	+0.37%	신흥국 고배당 ETF(DEM)	+1.28%
주택건설업체 ETF(XHB)	-0.11%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39%
바이오섹터 ETF(IBB)	-1.40%	미국 국채 ETF(IEF)	+0.08%
헬스케어 ETF(XLV)	-0.17%	하이일드 ETF(JNK)	+0.33%
곡물 ETF(DBA)	+0.46%	물가연동채 ETF(TIP)	+0.02%
반도체 ETF(SMH)	-0.96%	Long/short ETF(BTAL)	-1.36%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62.97	+1.61%	+5.95%	+15.53%
소재	474.52	+0.32%	+1.79%	+1.85%
산업재	772.88	+0.28%	+1.38%	+3.99%
경기소비재	1,325.41	-0.49%	-2.72%	-3.42%
필수소비재	667.86	-0.03%	-0.92%	-1.17%
헬스케어	1,326.48	-0.15%	-1.89%	-3.87%
금융	545.54	+0.50%	+2.51%	+9.05%
IT	2,328.11	-0.25%	-4.09%	-1.34%
커뮤니케이션	237.06	+1.05%	-0.62%	+4.44%
유틸리티	307.45	+0.80%	-2.01%	-5.66%
부동산	239.06	+0.31%	+1.16%	+3.3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발 매수세 유입 전망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45%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1.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나스닥의 2.5% 급락 여파로 하락 출발 했으나,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가 없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이 축소되며 한 때 상승 전환하는 힘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증시에서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한 밸류 부담이 컸던 종목군의 변동성 확대는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파월 연준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통화정책은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움직일 것” 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인플레이 우려를 완화 시키는 발언을 한 점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 국채 금리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화이자가 3 월에 백신을 두배 공급한다고 발표한 점, 미국과 유럽의 경제 봉쇄 완화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 미 증시 특히 나스닥이 장중 4% 급락을 뒤로하고 낙폭을 대부분 해소한 점 등은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흡수 여부 등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미 증시의 낙폭 축소가 대부분 대형주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점을 감안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수급 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

2 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88.9)이나 예상(90.0)을 상회한 91.3 으로 발표되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달 85.5 보다 개선된 92.0 으로 발표되었으나 기대 지수의 경우는 91.2 에서 90.8 로 둔화 되었다. 한편, 풍부한 일자리와 구직 어려움 차이인 일자리 격차는 전월 -2.5 에서 개선된 +0.7 로 발표돼 미국 고용이 안정세로 전환 되었음을 보여준다.

12 월 케이스-윌러 주택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1.3% 상승해 예상(mom +1.0%)을 상회 했다. 전년 대비로도 10.1%나 상승해 예상(yoy +9.6%)을 상회했다. FHFA 주택가격 지수 또한 전월 대비 1.1%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졌다.

2 월 리치몬드 연은 제조업지수는 전월(14)이나 예상(14)과 부합된 14 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신규수주는 12에서 10으로 둔화 되었으나 출하지수는 10에서 12로 개선되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상품, 외환, 채권시장 변화 제한

국제유가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약보합으로 마감 했다. 특히 텍사스 지역 한파가 해소 되었으나 장비 고장 등으로 생산 재개는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여기에 여행객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 등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 기대를 높이는 내용이 유입되며 최근 상승했으나, 이는 다음주 OPEC+ 회담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매물 소화 과정을 보인 것으로 추정한다.

달러화는 경제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의장이 의회 청문회를 통해 인내심 있는 통화정책 시사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혼조 양상을 보였다. 파운드화는 경제 봉쇄의 단계적 해제 발표 영향으로 달러 대비 강세를 이어갔다.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소폭 강세를 보인 가운데 남아공 란드화 멕시코 페소 등은 0.6~0.8%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개선으로 10 년물 국채금리가 한 때 1.39%까지 상승 했다. 그러나 파월 연준의장이 여전히 통화정책은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이고 추세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하락 전환 하는 등 보합권 등락을 보였다. 2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은 12 개월 평균(2.57 배)를 하회한 2.44 배를 기록했으나 간접입찰이 12 개월 평균(51.9%) 보다 높은 57.3%를 기록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으나 달러 강세 영향으로 약보합으로 마감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와 인프라투자 기대로 혼조 양상을 보였다. 대두, 옥수수 등 곡물은 파종 면적이 타이트할 것이라는 소식과 중국의 곡물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1%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1.67	-0.05	+2.65	Dollar Index	90.157	+0.16	-0.39
브렌트유	65.37	+0.20	+3.19	EUR/USD	1.2143	-0.12	+0.31
금	1,805.90	-0.14	+0.38	USD/JPY	105.28	+0.19	-0.72
은	27.742	-1.38	+1.37	GBP/USD	1.4109	+0.33	+1.48
알루미늄	2,147.00	-0.90	+2.90	USD/CHF	0.9056	+1.06	+1.47
전기동	9,206.50	+1.20	+9.53	AUD/USD	0.7909	-0.09	+1.95
아연	2,854.50	-1.54	+0.95	USD/CAD	1.2592	-0.18	-0.77
옥수수	552.50	+0.36	+0.50	USD/BRL	5.4411	-0.33	+1.18
밀	670.25	+0.07	+1.32	USD/CNH	6.46	-0.10	+0.54
대두	1,408.50	+1.51	+1.64	USD/KRW	1110.60	+0.02	+0.95
커피	138.30	+2.48	+9.59	USD/KRW NDF1M	1110.89	-0.16	+0.2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352	-1.36	+3.76	스페인	0.362	+3.80	+6.90
한국	1.892	-3.80	+4.70	포르투갈	0.251	+3.50	+6.60
일본	0.125	0.00	+4.00	그리스	0.926	+4.50	+15.90
독일	-0.315	+2.40	+3.30	이탈리아	0.643	+4.70	+7.2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